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호 【루계 제24422호】 주체103(2014)년 1월 9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체육교류를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미국 NBA(전국롱구협회) 이전 선수들로 무어진 명수팀과 우리 홰불팀 선수들의 롱구경기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지난해에 이채롭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벌려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나라 선수들의 롱구경기를 보기 위해 체육애호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기장소로 모여왔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부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롱구선수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시고 이번 경기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여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를 조직한것은 존경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데니스 로드맨은 원수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치였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강석주동지가 부인들과 함께 관람석에 나왔다.

경기에 앞서 발언한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선에 왔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조선인민이 원수님을 존경하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 관람자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경기 두회전은 우리 홰불팀과 미국 NBA 명수팀사이에, 다음 두회전은 두 나라 선수들의 혼합경기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열기속에 벌어졌다.

상대방의 전술적의도와 경기방식을 파악하며 량팀 선수들은 빠른 공격과 륜밑돌파, 먼거리던져넣기 등으로 득점률을 높이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이름난 롱구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도 출전하여 경기분위기를 돋구었다.

관람자들은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는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백팀과 록팀으로 나뉘여 진행된 혼합경기는 관람자들의 흥분을 더욱 자아냈다.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두 팀 선수들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꽂아넣기를 비롯한 다양한 특기동작들로 련속 보기 좋게 득점하였다.

철저한 대인방어와 역습속공으로 형세를 부단히 전환시키며 공방전을 벌린 경기들에서 우리 팀이 미국팀을 47:39로, 백팀이 록팀을 63:54로 이겼다.

두 팀 선수들에게 기념컵과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경기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경기에 참가한 두 팀 선수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경기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미국롱구선수들이 체류기간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롱구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선군령장의 발걸음따라 최후승리 떨치리!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주체103(2014)년의 장엄한 대진군나날이 흐르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철석의 각오와 의지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1월의 해빛이 따뜻이 흘러든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잡은 저 멀리 삼지연지구에서는 백두의 서리꽃이 장쾌한 설경을 펼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장 그 어디서나 전체 군민이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길이 빛날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커다란 진폭으로 메아리쳐온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

선군으로 담보되는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행복!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선군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에 대한 감사의 정과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높뛰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숭엄히 새겨지고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든든히 졸라매신 신들메를 푸실사이없이 끊임없는 전선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음으로 헤치며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칠수 있는것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강철의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영웅서사시적행로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해의 1월 1일을 잊지 못하고있다. 바로 이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선군으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불굴의 의지를 안으시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모습은 첫 당조직건설에 앞서 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고 백두밀림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으로 선군혁명령도의 첫걸음을 내디디시였으며 해방후 국가건설에 앞서 정규적인 혁명무력부터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통남산언덕에 오르시여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기에 앞서 선군혁명령도의 뜻깊은 첫 자욱을 새기시였고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첫날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여 선군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철석의 신념을 가다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 그대로이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기념촬영장에서 결전장에 나가는 전우들처럼 지휘관들의 손을 잡고 팔과 팔을 힘있게 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세차게 끓고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였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

선군의 한길로 조선을 이끄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선군혁명의 강행군길, 총대로 수놓아진 선군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였고 군력강화의 새 경지가 얼마나 위대한 헌신과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것인지 그대로 새겨져있다.

총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킬수 없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날도 있었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시여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감격의 순간도 있었다.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훈련을 지도해주신 이야기도 있고 적들이 화약내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때에 적진의 코앞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강화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신 사실도 있다. 파도사나운 최대열점지역에로의 바다길은 오늘도 그이의 결사의 신념을 담고 끝없이 출렁이고 철령의 새벽안개는 그이의 조국수호의 의지와 통일조선의 미래를 담고 뜨겁게 흐르고있으며 오성산의 험한 산악은 그이께서 마련하신 선군의 위대한 력사를 전하며 총대마냥 우뚝 솟아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어버이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사회주의수호전, 붉은기수호전의 피어린 력사가 가슴후덥게 안겨오는 선군의 산악 오성산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잊지 못해한다.

한줄기 바람에도 금시 무너져내릴것만 같은 바위들이 첩첩 둘러싸인 가파로운 152굽이 칼벼랑길을 톺으시여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얼마나 험한 곳에 오르시였는가를 자신께서도 오늘 올라오면서 다 느끼셨다고, 오성산은 지대적으로 중요해서만이 아니라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해에 두차례나 오르시였던 선군의 산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백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까칠봉초소까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병사들뿐이 아닌 온 나라가 얼마나 뜨거운 격정속에 가슴을 조이였던가.

조국의 최전연을 지켜선 미더운 군인들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병사들모두가 절감한것은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는 길에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굳은 자각이였다.

우리 원수님의 선군길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일제의 백만대군을 벌벌 떨게 하시여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치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쥐락펴락하시며 단호한 불호령을 내리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희세의 영웅전과 잇닿은 자욱이였다.

때로는 먼길을 달려오시느라 아침식사를 건느기도 하시였고 병사들보다 먼저 진지의 이슬맺힌 오솔길을 걸으시면서 옷자락을 적시기도 하시였다. 오랜 시간 인민군부대를 돌아보시고 바람세찬 산중턱에서 때늦은 줴기밥을 들기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선군으로 수놓아진 경애하는 그이의 이런 불멸의 헌신과 다심한 은정속에 섬마을 외진 초소들이 천도개벽되고 인민군대 모든 중대들이 병사들의 정든 집,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되고있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바로 그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고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전우애에 떠받들려 전군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피와 정을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전우부대로 되였다.

사랑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위대한 발걸음따라 내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할 불패의 강국으로 우뚝 솟구치게 되였으며 진정한 평화는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총대, 참다운 사랑과 믿음이 맥맥히 흐르는 선군으로 지켜진다는 진리가 온 세상을 진감시키고있다.

령장의 슬하에는 약졸이 없다.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일동지, 제일전우,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 이것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참모습이다.

결사옹위의 노래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수 있겠는가.

선군혁명령도의 전선길에서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승리떨칠 우리 혁명의 미래를 락관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시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입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읍시다.》

위대한 령장께서 억세게 다져주시는 무적의 총대가 있기에 선군혁명의 밝은 미래는 확정적이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장구한 실천투쟁에서 검증된 필승불패의 진리이다.

위인복이자 사회주의복, 선군복이며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라는것이 이 땅에 굽이치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이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백두산대국은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로 찬란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김 정 은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안북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벽두부터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1월 5일, 도적으로 수만t의 거름을 협동농장들의 포전들에 실어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의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농사차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수만t의 거름을 생산하여 남민협동농장을 비롯한 신의주시의 농장포전들에 실어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서도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질좋은 거름을 집중적으로 포전들에 실어냈다.

정주시와 구성시, 운전, 선천, 곽산, 동림, 염주, 룡천,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자체로 마련한 많은 량의 거름을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내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새해농사차비를 적극 도와주었다.

태천, 대관, 창성, 벽동, 천마, 운산군을 비롯한 산간지대의 군들에서도 거름실어내기를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농사차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에서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협동농장들에 수만t의 거름을 보내주어 새해농사차비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사리원시, 황주군, 린산군이 농촌지원사업의 앞장에 서고있다.

사리원시의 일군들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벌에 실어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농촌지원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속에 시에서는 지난 4일에만도 2 500여t의 거름을 미곡협동농장과 구룡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주변농장포전들에 실어냈다. 황주군에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동, 인민반원들이 모두 떨쳐나 2 200여t의 질좋은 거름을 긴등벌을 비롯한 협동벌들에 실어내갔다. 린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서흥군과 상원군, 장풍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많은 거름을 실어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농촌지원사업은 올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강원도에서

뜻깊은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지난 5일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많은 량의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 일군들은 올해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성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거름을 화물자동차들에 싣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포전으로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쳤다.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마련한 많은 량의 거름을 시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문천시와 고성, 세포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공장, 기업소들과 가두인민반들에서도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많은 량의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 황해북도에서 —

— 강원도에서 —

라남식료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를 벌리던 지난 7일이였다.

하루일을 마친 종업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뜻깊은 올해 첫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 만만한 배심이 어려있었다.

그러한 그들을 둘러보며 지배인 진영길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난 이미 우리가 세웠던 올해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어쩐지 그 계획이 낮아보인다는것이였다.

《계획을 다시 세웁시다.》

기사장의 대답에 모두가 찬동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계획을 다시 높이 세우게 되였다.

사랑작업반에서는 자동흐름식 사랑생산공정을 꾸리는것과 함께 물엿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원료기지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더 많은 원료를 생산보장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자체탄광의 종업원들은 그들대로 이미 계획했던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과자작업반원들은 공장기술집단과의 련계밑에 콤퓨터조종실을 잘 꾸려놓고 전반적인 과자생산공정을 콤퓨터로 감시조종하면서 과자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설비현대화를 실현한 콩우유작업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다시 높이 세운 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결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다시 높이 세운 계획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나무생산을 늘이는데서 겨울철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에 깊이 들어가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로동자들을 고무해주고 통나무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진행하고있다.

상창림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 새해전투의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불도젤, 뜨락또르, 림철기관차에 의한 통나무모으기,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를 적극 따라세워 1월 통나무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림철기관사들은 철길과 림철기관차들의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산판에서 통나무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집중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된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내고있다. 통하, 성파, 부전림산사업소의 운전사들은 겨울철산판도로조건에 맞게 륜전기재들의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통나무수송실적을 계속 높이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타리개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압록강류벌사업소의 로동자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로탄청년림산사업소에서는 생산전망이 좋은 림지에서 통나무를 제때에 끌어내기 위한 10여km의 철길부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업소의 청년들이 철길부설공사장에 달려가 청춘의 용맹을 떨치며 로반공사에 이어 철다리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산판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가운데 련합기업소아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새해 정초부터 산판에 달려가 지원전투를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사업소들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겨울조건에 맞게 통쏘이를 비롯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자동차, 림철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있다.

사업소들의 공무직장과 림철직장에서는 륜전기재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함경남도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함경남도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의 기쁜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허천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발전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전력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허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이곳 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생산장성의 예비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새해 첫 전투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한주일동안에만도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말에 모든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말끔히 해놓고 새해전투 첫시작부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콤퓨터에 의한 언제수위측정체계를 세워놓고 물을 과학기술적으로 리용하여 적은 량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 발전기들에 만부하를 걸어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2호, 4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의 운전근무성원들은 수위측정과 수문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전기기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속품과 부분품생산을 앞세워 예비부속품, 예비부분품을 마련해놓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장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에 들어와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발전소의 책임일군들은 여러 발전소들에 나가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대중을 전력증산에로 적극 고무추동해주고있다. 1, 2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순회감시조직을 책임적으로 하고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매일 계획을 101%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하루하루를 위훈창조로 빛내여 한주일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전력을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새해벽두부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1호, 2호, 5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순회점검과 계기감시를 잘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계획을 103%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3호발전소에서는 물몰이를 통이 크게 하여 저수지에 많은 량의 물을 잡아놓았다. 그리고 수문보수와 관리를 잘하여 요즘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으로 간직하고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증산의 동음은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현지보도

한 발 파 더!

혜산청년광산 6월3일갱 리영진굴진소대 막장에서

여기는 혜산청년광산 6월3일갱 리영진굴진소대 막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막장에 들어서는 소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력력히 비껴있다.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부르는 힘있는 글발들이 소대원들의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소대장 리영진, 착암수 오광명동무들이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암벽을 마주선다. 착암기의 야무진 소리가 막장을 들었다놓는다. 단면이 넓은 막장조건에 맞게 이들은 발파구멍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뚫어나간다. 얼마후 착암기의 소리가 뚝 멎는다. 발파공들이 날렵하게 발파구멍들에 폭약을 다져넣고 도화선에 불을 단다.

잠시후 《쾅!—》하는 요란한 폭음이 막장안을 들었다놓는다.

발파가스가 가셔지기 바쁘게 전동삽차가 움실움실 다가온다. 무너져내린 광석이 전동삽차의 앞을 막는다. 전동삽차가 광석을 푹 퍼서 높이 들어올린다.

때를 기다린듯 전차가 광차들을 뒤에 달고 들어선다. 전동삽차운전공이 능란한 솜씨로 광차들에 광석을 무득하게 담는다.

이어 광차들이 기세좋게 막장을 빠져나간다.

《동무들, 첫달계획은 문제없소.》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리영진동무가 웨치는 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그 과업관철에 진입한 이들의 일본새는 확실히 여느때와 다르다. …

리영진동무가 호기있게 구령친다.

《한발파 더!》

소대원들이 또다시 착암기를 으스러지게 틀어잡는다. 그 기세에 눌리운 암반이 금시 부서져내리는듯싶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승리자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들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시군중대회가 8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필승의 기상을 안고 모인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홍인범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장현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영일, 평성공업대학 소장 석일오,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박창현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에게 태양조선의 밝고 창창한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도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권위,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도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과 과학자살림집, 체육시설건설, 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 등을 다그쳐 끝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용약 달려나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태종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성봉,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함흥화학공업대학 소장 주명철, 함흥농업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장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메타놀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함흥모방직공장의 편직사생산공정건설과 함흥편직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였으며 농업생산을 늘이고 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것이라고 말하였다.

군민협동작전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건설공사들을 줄기차게 내밀며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과 비료생산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치며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흥지구 화학공장들과 검덕, 단천, 고원, 수동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수산부문과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오수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신철웅,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 정영춘, 도도시설계연구소 소장 함광민,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송태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며 축산을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랑천발전소, 청진시 포항지구살림집, 공공건물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며 시, 군들을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잘 꾸리고 거리와 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봉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을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탄광과 발전소들의 생산을 추켜세우며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앞장에서 받드는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림경만 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시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최송남, 라선건설사업소 지배인 최영보, 라진해운대학 부학장 김정수, 시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리동주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바로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며 학생소년궁전과 물놀이장, 살림집 등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시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경영활동과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활성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투철한 혁명의식과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시) 2014년의 승리봉을 향하여

신 문 경

새해 첫아침
비약에로 부르시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울려퍼졌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를 부른다
위대한 변혁의 해를 부른다

그 위대한 심장의 울림은
투쟁과 전진의 날과 날을 주름잡아
벌써 2014년의 승리봉에서
장쾌하게 메아리쳐 울려온다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그 구절구절에서 인민은 본다
또 한해 변모될 조국의 모습
행복이 꽃피는 인민의 생활
문명강국의 위용

뜨거운 애국의 그 부름에
천길막장의 탄부들
채탄기의 높은 동음으로 화답한다
전야에선 거름을 내는 농업근로자들
봄의 아지랑이마냥 흰 김을 피워올린다

원수님 부름따라 기어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 손으로!
승리의 신심드높이
우리는 이렇게 심장으로 화답해나섰다

당중앙에 대한 철석의 믿음
이것이 천만군민의 무한한 힘이다
원수님 안겨주신 혁명적열정
이것이 비약하는 조국의 나래다

순결의 대오
뜨거운 정의 흐름
하나의 뜻으로 뭉친 일심의 대하가
폭풍쳐 내닫는 소리 가슴벅차다
노도치는 기상 억세다

본때있게 한껏 땀을 뿌려가자

조국을 수호해가는 복무의 길우에
과학탐구의 낮과 밤들에
금메달을 향한 훈련의 주로에
후대들이 지켜보는 성스런 교단우에

만복을 약속하는 새해의 진군길

천만가지 고운 꿈이 이 땅에 꽃필
2014년 승리봉우에
찬란한 태양의 해살이 비쳐
아름답고 령롱한 무지개 비껴온다

힘차게 내디딘 이 첫걸음에
내 조국의 륭성기
선군조선의 휘황한 앞날이
눈앞에 척-척- 가까이 다가선다
오, 조국이여 인민이여 앞으로
2014년의 승리봉을 향하여 앞으로!

(시) 새해의 진군길에서 부르는 노래

김 석 천

눈앞엔 더 좋은 래일
가슴엔 필승의 신심
경애하는 원수님 펼쳐주신
조국번영의 희망찬 설계도 안고
천만이 떨쳐나선 새해의 진군길

조국은 세계가 보란듯이 더욱 부강하게
인민은 남들이 부럽도록 더욱 행복하게
원대한 그 뜻을 꽃피우는 길엔
넘어야 할 시련의 고개도 있으리
해야 할 아름찬 일감도 참으로 많으리

허나 심장에 끓는 피는 더욱 용솟아
돌격의 발걸음에 힘을 더한다
우리에겐 그 누구에게도 없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있다

이 나라 천리방선들에서
우리 병사들이 추켜든 총검의 숲에
그 정신력은 멸적의 섬광으로 번뜩이고
이 나라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인민이 높이 든 마치와 낫과 붓에
그 정신력은 비약의 불바람으로 나래친다

광란하는 눈보라도
신념과 의지로 뚫고
역경도 순경으로 되돌려세우며
이 땅에 강국을 일떠세운
오, 천만군민의 정신력!

이 정신력만 있으면
이 땅이 무거웁게
오곡백과 가득히 실리우리
건설의 새로운 대번영기와 함께
선군시대 기념비들 즐비하게 솟아오르리

이 정신력만 있으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최첨단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리
애국에 끓는 우리의 심장은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피는 락원을 펼치리

천만군민이 지닌
무궁한 이 정신력은
창조와 혁신
세기의 기적을 낳게 하는 거대한 힘
내 조국 강성번영의 비약의 억센 나래

세계의 창공높이 힘차게 나붓기라
땀배인 금메달로 떠올리는 우리 국기여
누리를 진감하며 더 높이 울려가라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여
이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빛내가는 위대한 내 조국이여

원수님 가리키신 최후의 승리봉을 향해
산악도 폭풍도 맞받아 뚫고 앞으로
찬란한 래일을 마중가는 장엄한 진군길에
천만의 발구름은 뢰성친다
우리에겐 백두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있다!

의무이기 전에 의리이여야 한다

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개천시당위원회에서는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과 영예군인, 위훈을 세운 대상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돌보아주는것을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여기고 이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 시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주로 명절이나 중요계기때마다 일군들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위훈을 세운 대상들을 찾아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을 안겨주는 식으로 진행하였었다.

어느날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과 영예군인, 위훈을 세운 대상들을 잘 돌보아줄데 대한 당의 의도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던 시당책임비서 김일철동무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동지애의 세계가 가슴벅차게 안겨와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혁명적동지애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더 잘해나갈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세운 시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갔다.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이 사업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견해와 관점을 확고히 세워주기 위한데 힘을 넣었다.

시급기관의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이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과 영예군인, 위훈을 세운 대상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감동적인 위훈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하였다. 그리고 강연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위훈내용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새겨주고 그것을 걸음걸음 받들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해 12월 24일을 맞으며 시당위원회에서 조직한 협의회를 계기로 시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진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중시한 점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고있는 대상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해나간것이다.

개천시상업관리소에 가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이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에게 보내온 편지가 대단히 많다.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놓고 시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우대해주면서 해마다 땔감도 도맡아 보장해주는 봉사자들에게 전해온 감사편지들이다.

시당위원회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공민적량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봉사자들의 긍정적소행을 방송선전차와 종합속보판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동시에 일군들이 모이는 계기를 리용하여 통보해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주는데서 일군들이 앞장섰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을 발동하여 천리길동 10인민반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었다. 이 소식은 시안의 영예군인들에게 혁명의 총대를 잡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온 긍지를 한껏 느끼게 하였으며 자식들에게도 부모들의 넋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을 다해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위훈을 세운 대상들과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돌보아주고 내세워주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평가할만 하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각오안고 떨쳐나섰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의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비약의 불바람으로 푸른 등판 펼쳐가리

새해벽두부터 세포등판건설장에 새로운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집짐승떼가 구름처럼 흐르는 푸른 등판을 하루빨리 펼쳐갈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려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한주일동안에 10여만t의 토양개량제를 운반하고 많은 건설자재들을 확보하는 혁신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들어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자.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목표를 제기하였다.

—한달동안에 토양개량제생산과 운반, 건설자재확보계획을 80%이상 수행할것.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충정의 맹세와 결사관철의 의지가 차넘치는 목표였다.

살을 에이는듯 한 칼바람과 발목을 넘게 내려쌓인 눈으로 하여 작업조건은 불리하였지만 무조건 수행해야 할 전투과제였다.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 드높은 신심을 안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공격전에 나섰다.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은 소석회, 유기질비료생산과 운반 그리고 목재, 세멘트, 흔석을 비롯한 건설자재확보를 동시에 내밀면서 해당 단위들이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지휘관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없는것은 창조하고 작은것으로 큰것을 얻을수 있는 방도들을 내놓으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전투장 어디서나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지휘관들이 여러 건재생산기지에 대한 동시집중수송을 조직한데 이어 기관차를 타고 1 800여t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수송을 맡아해제낌으로써 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군인건설자들은 각이한 지형조건에서 운반속도를 높일수 있는 크고작은 발구들을 만들어 온 등판을 뒤덮다싶이 하였다. 그들은 눈덮인 10여리길을 매일 5회이상 오가며 500여t의 거름과 소석회를 실어내였다. 자동차운전사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계획을 무조건 책임진다는 각오밑에 륜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하루과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뜻깊은 올해의 영웅적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될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은 얼마나 미더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철도성려단 일군들은 1만여t의 토양개량제생산과 운반은 물론 목재생산도 한달동안에 기본적으로 끝낼 통이 큰 잡도리를 하였다.

한영철, 로정혁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이 즉시 현지에 나가 륜전기재들과 운반수단들을 총집중시켜 토양개량제를 하루 최고 500t씩 운반하고 목재생산도 내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에 따라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 개천철도국, 직속대대들에서는 경쟁적으로 토양개량제생산과 운반을 다그쳐나갔고 청진철도국대대에서는 1 000여m³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전투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세포군사단의 전투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모두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날마다 작업실적을 높여나간 인민봉사총국, 보건성, 상업성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140여대의 발구를 만들어 닷새동안에 수백t의 유기질비료를 실어낸 건설건재공업성돌격대원들, 계획된 500여t의 흙보산비료원료를 마련해놓은 수매량정성, 화학공업성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자체로 석회로를 건설하여 토양개량제생산에 앞장선 원유공업성돌격대에 뒤질세라 성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200여t의 소석회를 확보한 금속공업성돌격대원들, 토양분석에 기초하여 질좋은 각종 토양개량제를 충분히 확보한 농업성, 국가계획위원회, 내각사무국돌격대원들…

어찌 이들만이랴.

제손으로 강성국가의 성돌을 쌓고 인민의 행복의 꽃을 피우는 창조자가 되자고 하면서 각도, 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새해전투 첫시작부터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해나간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백대의 륜전기재와 운반도구로 수천t의 토양개량제를 먹이풀밭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여 불모의 땅을 기름진 사회주의의 푸른 언덕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남포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맡겨진 유기질비료생산 및 운반전투과제를 매일 120%이상씩 넘쳐 수행하였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계획된 면적의 흙깔이를 단숨에 끝낼 각오를 안고 떨쳐나 토양개량제운반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황해남도, 라선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더욱 분발하여 계획된 거름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해나갔다.

이천군사단에서도 일군들의 빈틈없는 전투조직과 지휘,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애국열의로 하여 혼석채취와 거름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축산기지건설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 영 철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 자 강 도 려 단 에 서 —

개척자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자

◇ 1월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기 시작하였다.

들끓는 건설장에서 우리와 만난 철도성 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축산기지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여 세포등판개척자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세포, 평강, 이천군사단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이런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장엄한 새해의 첫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 세포등판개척자의 영예를 높은 건설실적으로 빛내이는 사람이 애국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시였다.

이런 크나큰 영광, 뜨거운 믿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새해의 첫아침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가를 받아안은 세포등판개척자들을 축하해주며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세포등판에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많은 고기와 젖가공품을 비롯한 축산물이 차례지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에서 눈부신 위훈을 창조하는 개척자들이 바로 조국이 요구하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제기일에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이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축산기지건설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모든 지휘부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각오밑에 이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빈틈없이 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각종 유기질비료와 소석회, 탄재 등 토양개량제생산을 다그쳐 끝내며 흙깔이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풀씨도 빨리 확보하여 날이 풀리면 건축물건설과 씨뿌리기를 계획대로 내밀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과 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떨쳐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완공의 날을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할것이다.

구체적인 토양분석과 토지개량전투

황해남도려단에서

황해남도려단 일군들이 한뙈기의 먹이풀밭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며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계획보다 1.5배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구색이 맞게 실어내도록 함으로써 먹이풀생산을 늘일수 있는 좋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는것은 주목할만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필지별토양의 조성성분과 땅의 래력에 기초하여 흙깔이도 하고 소석회같은것도 쳐서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량하여야 합니다.》

지력을 높이는데서 려단일군들이 중시한것은 토지개량을 질적으로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먹이풀판이 경사지, 평지, 하천기슭 등 각이한 지대에 조성되여있기때문이였다.

려단에서는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조건, 토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토지개량전투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조직하고 일군들에게 분담하였다.

결과 지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지대안에서도 새로 조성한 먹이풀판의 토양상태가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우선 토양의 조성성분과 구조에 따라 먹이풀밭을 180여개의 포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토양속의 영양원소함량을 포전별로 정확히 분석한 다음 지력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일군들은 여기에 기초하여 포전별토지개량목표를 세웠다. 먼저 흙깔이와 랭습지개량을 해야 할 포전들을 확정하고 석탄재, 모래기가 많은 흙, 막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다음으로 포전별 소석회, 진거름, 구운흙 등의 각종 토양개량제를 낼 량을 따져보고 종류별로 생산하기 위한 전투계획을 세웠다. 그러자면 10여가지의 각종 거름원천과 소석회생산에 필요한 많은 석회석이 있어야 하였다.

어려운 전투과제였다. 그러나 려단장 김명석동무는 이 문제를 먹이풀의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보고 청단군대대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모든 대대들에서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맡겨진 전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유기질비료생산을 짜고들어 성과를 높여나간것도 본받을만한것이다.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인 사실을 놓고보자. 흙보산비료생산에서 기본은 질좋은 원료를 확보하는것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것이 별로 많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려단일군들은 대대들에서 100t규모의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거름원천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짐승배설물과 섞어쌓기 위한 전투를 근기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진거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도록 하였다.

리명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모든 대대들에서 진거름과 퇴적장바닥의 제일 잘 썩은 거름을 리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계획보다 1.5배의 질좋은 원료를 확보하여 흙보산비료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성과가 높아지는데 맞게 려단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포전별에 따르는 거름종류와 수량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정확히 실어내도록 현장지도에 품을 넣었다.

일군들은 봄철풀판조성준비를 질적으로 하기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정치부장 유철호동무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유기질비료생산, 흙깔이 등의 작업과 관련된 과학지식보급과 기술학습, 보여주기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대하고 토지개량을 질적으로 하기 위한 전투를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려단이 토지개량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숨결 높뛰는 대지

◎ 황해북도려단 황주군대대에서 ◎

여기는 황해북도려단 황주군대대의 먹이풀판조성구역이다.

지금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기세충천하여 떨쳐나선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거름실어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 기발들,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부르는 선동원의 힘있는 호소,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거름실어내기를 다그쳐나가는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열의로 하여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는다.

류달리 큰 질통을 지고도 성차지 않아 어깨우에 거름마대를 메고나선 대대장 김욱동무의 모습도 미덥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새겨주며 그들과 함께 발구전을 벌리는 대대정치지도원 최철호동무의 모습은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날씨는 맵짜고 1월의 찬바람이 모든것을 날려보낼듯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거름운반전투를 다그쳐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승리자의 신심이 넘친다.

말없는 경쟁속에 더운 김이 물씬물씬 오르는 거름을 듬뿍듬뿍 떠내며 걸싸게 일을 해제끼는 돌격대원들의 땀배인 얼굴들, 거름마대를 메고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더욱더 기세를 올리는 돌격대원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정상복동무가 거름을 다 부린 뜨락또르를 몰고 떠나기 바쁘게 운전사 윤덕현동무가 적재함에 거름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몰고 포전으로 들어선다.

《자, 불이 번쩍 나게 또 한바탕 해제낍시다.》

대대의 혁신자로 소문난 돌격대원 김영심동무의 목소리에 모두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친다. 이들이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일자리를 푹푹 내고있을 때 김원진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무거운 거름발구를 끌고 와—와— 기세를 올리며 달린다.

그 어디나 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거름운반실적은 시간을 다투며 계속 높아만 간다.

《우리 돌격대원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길 좀 보십시오. 새벽부터 떨쳐나 벌써 많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습니다.》

거름마대를 메고 앞장에서 달리며 힘있는 전투적호소로 앙양된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던 선동원 조인철동무가 우리에게 하는 자랑이다. 거름의 질적상태를 따져보는 대대일군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린다.

들끓는 전투장의 새 소식을 김학선동무가 현장속보판에 큼직한 글씨로 써나간다.

《열렬히 축하! 오전 11시 현재 하루과제 75%이상 수행!》

작업열의는 더욱 높아가고 포전에는 새로운 거름무지들이 키돋움하며 솟아난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려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정이런듯 붉은기들이 더욱 세차게 휘날린다.

본사기자 김 성 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전변의 새 모습

3대혁명붉은기 제남탄광에서

서부지구의 손꼽히는 석탄생산기지의 하나인 3대혁명붉은기 제남탄광이 창립 50돐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나라의 석탄생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여온 제남탄광은 창립당시의 자그마한 탄광으로부터 생산능력에서나 현대화수준에서도 자랑할만한 굴지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고 막장으로 향하는 탄부들의 희열에 넘친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보다 휘황찬란할 내 조국의 탄전의 래일이 비껴있다.

굴지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

장장 반세기에 달하는 탄광의 창조와 비약의 력사는 그대로 나라의 석탄생산에 기울여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로고와 애국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졌다.

전후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1950년대 중엽 형봉탄광 소속 분탄광으로 석탄생산을 시작하던 당시 탄광의 생산규모는 보잘것없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1월 제남탄광으로 발족되던 당시의 실정도 마찬가지였다. 분산적으로 생산을 진행하던 크고작은 갱들이 합쳐지고 일군들과 탄부들도 여기저기에서 모여오다나니 창립당시 탄광의 경영관리수준과 생산규모, 물질기술적토대는 너무도 미약하였다.

주체66(1977)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의 덕천지구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탄광의 발전력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덕천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곳 탄광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덕천지구에 있는 여러개의 탄광을 망라하는 탄광련합기업소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어지고 인민군군인들이 탄광들에 달려나와 석탄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전망굴진을 밀고나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석탄생산에 기울여오신 로고와 탄부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는 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탄광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으며 일군들과 탄부들을 중요대회들이 진행될 때마다 불러주시고 높은 국가수훈과 은정어린 선물, 사랑의 보약재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였다.

199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20여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한 력량을 파견하시여 탄광의 앞날을 억세게 떠메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떠받들려 탄광은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펼치였다. 창립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탄광은 생산능력에서나 현대화수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해제끼는 탄전으로 전변되였다.

나날이 젊음으로 비약하는 탄전

다른 부문과는 달리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갱막장이 깊어지고 심부채굴에 들어갈수록 더더욱 많은 자재, 로력소비를 동반하게 되며 그만큼 확대재생산에서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제남탄광은 석탄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청춘기의 활력에 넘쳐있다.

이 나날 탄광은 국기훈장 제1급과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으며 김일성훈장수훈자와 로력영웅을 비롯한 많은 국가수훈자들을 배출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굴지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 전변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탄부들의 문화생활과 로동생활조건개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생산지령실에서 만난 기사장 리철운동무의 이야기는 창조와 비약의 한길로만 줄기차게 내달리며 굴지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로 전변되여온 탄광의 발전력사의 근본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있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탄광적인 석탄생산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 5년동안에만도 년간 석탄생산량이 그전시기에 비해 20만여t이나 더 늘어나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망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는데 큰 힘을 넣은데 있다.

1990년대에 총연장길이가 4 500m에 달하는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조업하여 여러 갱들의 석탄운반능력이 1.5배이상 높아졌다. 2000년대에는 1 400m길이의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가 완공됨으로써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에 인입되지 않은 갱들에서 생산되여나오는 석탄을 보다 적은 자재와 로력으로 집중적으로 뽑아낼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경제강국건설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독골지구의 능력이 큰 버럭운반계통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주변환경의 오염을 막으면서도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데 따라 전망이 좋은 새 갱, 새 구역개발에도 력량을 집중하여 해마다 석탄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이였다.

지금 탄광에서는 심부채굴에 들어가는데 맞게 석탄운반능력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난해말까지 벨트콘베아갱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이어 올해의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업을 보장할 목표밑에 벨트콘베아조립에 총돌입하였다.

석탄생산만이 아니였다.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모두가 탄광지구라고 하기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게 펼쳐진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대동강의 푸른 물결과 더불어 청춘기의 활력에 넘쳐있는 탄전의 새 모습에서 쉽게 눈길을 떼지 못한다.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와 그 량옆에 늘어선 여러 동물조각상들, 현대미를 뽐내며 독특하게 일떠선 생산지령실과 목욕탕, 영양제식당, 남새온실을 비롯한 각종 생산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

창조와 변혁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나날이 젊음으로 비약하는 탄전!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도, 일터를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는데서도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는 제남탄광의 눈부신 오늘은 이곳 탄광지구의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먼저 첨단돌파의 령마루에

첨단돌파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가는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일본새는 이곳 탄광지구를 크게 변모시키고있다.

지난 3년도 안되는 사이에만도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그 어디에나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콤퓨터에 의한 벨트콘베아운전지휘체계,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계, 콤퓨터에 의한 원격화상회의체계, 로동정량 및 로력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업무지원체계…

석탄생산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으로 하여 얻은 경제적실리는 대단하다. 지난해에만도 탄광에서는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매달 8천여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꺾임식무동력삭도와 무정전통화기에 의한 막장생산지휘, 단상차단기에 의한 전동기보호장치, 전차제어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창의고안, 새 기술혁신안들을 현행생산에 도입하여 큰 덕을 보았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선진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탄광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생산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의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천연색화상에 의한 버럭선별기능을 갖춘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계의 확립과 생산과 계획, 재정회계, 로력, 자재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통합생산지휘체계의 구축!

그것을 맡아할만 한 탄광자체의 기술력량도 충분하며 물질기술적토대도 그쯘하다.

오늘 탄광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 공부한 로동자들까지 모두 수백명의 기술자들이 있으며 튼튼히 꾸려진 공무기지들에서는 막장소공구들은 물론 전차와 탄차의 차륜쌍, 각종 치차를 비롯한 석탄생산에 필요한 가공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산해내고있다.

남들이 걸은 열걸음, 백걸음을 한걸음에 따라앞서며 첨단돌파의 령마루에 남먼저 올라서려는 만만한 배심으로 완강하게 돌진해나가는 척후병, 개척자들이 있어 탄광지구의 모습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 기어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들의 불같은 열의와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부강번영의 래일이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행복의 보금자리와 꿈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연구소에서—지혜를 합쳐간다.

—평안북도도시설계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구내에 일떠서고있는 종업원들의 합숙, 그와 더불어 펼쳐지는 방직공처녀들의 생활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합숙건설이 한창인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며 혁신자정방공들인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의 김옥별, 김송이, 김은이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새 보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고, 사람들은 처녀시절을 꿈많은 시절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미처 꿈꾸지 못한 새 생활을 우리 원수님께서 펼쳐주고계신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방직공장 처녀들에게 있어서 합숙은 정든 고향집과 다름없는 보금자리라고 말할수 있다. 하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활하게 될 합숙을 놓고 일하면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이야기꽃을 피우군 한다. 새 합숙의 구조는 어떻게 되여있으며 어떤 희한한 설비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의 방직공처녀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꿈꾸고 그려보는것보다도 더 훌륭한 새 보금자리가 일떠서고있다는것을 아직은 다 모를것이다.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 사랑이 방직공처녀들의 보금자리에 깃들어있는것인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수십년전 봄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합숙식당에 들리시여 친히 국맛을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방직공처녀들이 합숙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식사의 질은 어떤가를 일일이 알아보시며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합숙에 들리시여 로동자들이 먹는 국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였으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공장합숙을 잘 지어줄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지금 공장의 구내에는 방직공처녀들의 보금자리가 자태를 드러내놓으며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고있다.

정방공 김옥별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전 교대를 마치고 합숙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꿈을 꾸었다.

새로 일떠선 합숙의 호실들을 들락날락하며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데 글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였다. 청년절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했던 동무라는것을 알아보시며 원수님께서는 호실이 마음에 드는가고, 동무들이 모두 좋아하는가고 따뜻이 물으시였다.

그는 너무 기뻐 모두들 잠 못 이룬다고, 어떤 처녀들은 이렇게 훌륭한 합숙을 떠나기 싫어 시집을 안가겠다고까지 하였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아뢰였다.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일을 잘해서 모두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

《그날 꿈이야기를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는데 글쎄 우리 호실의 한 동무는 눈물까지 글썽해지는것이였습니다.》

이러는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려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우뚝우뚝 솟구쳐오르는 합숙을 바라볼 때마다 보답의 마음도 커진다고, 혁신의 동음을 더 세차게 울려 결의한대로 3월말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를 듬뿍 받아안고 고마움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렸던 정방공 김송이, 김은이자매도 지난해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던 혁신자들이다.

일터에 나서면 둘도 없는 경쟁대상이고 합숙에 돌아가서는 사이좋은 자매인 그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합숙건설장에 달려가군 한다.

이들만이 아니다.

공장의 방직공처녀들모두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빛내이고있다.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보답할가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하루과제를 150%, 200%로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뛰고 또 뛰는 우리의 방직공처녀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고 자랑스럽다.

기대사이를 오가며 로동의 보람을 한껏 누려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처녀들의 새 생활을 그려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희망을 꽃피우며 영웅으로, 혁신자로 자라날 그들의 밝은 모습이 눈앞에 막 안겨드는듯싶었다.

이제 머지않아 완공될 새 보금자리는 꿈많은 처녀들을 소리쳐부를것이니 우리의 미더운 방직공처녀들이여, 원수님품속에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라, 그대들의 희망넘친 생활을 온 세상에 자랑하시라.

본사기자 오은별

습성화된 일과

지난 1월 4일 아침 **평양대동문유치원 당조직**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때였다.

전충복, 리은경, 한영희동무들을 비롯한 교양원들모두가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이미 깊이있게 학습하여 완전히 파악했었다. 이것은 례사로운 일이였다.

령도자의 사상을 뼈와 살로 새기고 후대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자, 이것이 유치원당조직이 교양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일관하게 틀어쥔 고리였다.

당세포비서 김명순동무는 자신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교양원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구체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학습은 종업원들의 습성화된 일과로 되였다.

로작학습열풍은 후대교육사업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기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탐구, 도입되였고 조기음악교육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은 홍리향, 리향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뛰여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수령의 사상과 뜻을 심장에 깊이 새길 때만이 어린이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들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세포비서의 이 말은 유치원에서 최근년간 후대교육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비결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장자강반에 인민의 유원지가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강계시의 장자강기슭에 인민유원지가 훌륭히 꾸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준공한 장자강인민유원지로는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있다.

부지면적이 1만 8천㎡에 달하는 인민유원지에는 로라스케트장, 롱구장, 배구장, 바드민톤장과 회전그네, 미끄럼대를 비롯한 유희시설, 어린이들과 로인들이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체육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유원지의 한쪽구획에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평양체육관, 천리마동상, 서해갑문,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적들을 축소한 40여점의 모형들이 록지에 세워져있다. 경사급한 날벼랑에 사슬란간을 드리운 층층계단이 새로 생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건축유산인 망미정에 올라 장자강의 풍치를 부감할수 있게 되였다.

장자강인민유원지의 야경도 희한하다.

여러 형태의 레드투광등과 각종 출력의 레드등들의 화려한 불빛이 나무와 건물, 록지와 걸음길, 축소화된 기념비적건축물과 문화유적의 축소모형들을 조형예술적으로 잘 안겨오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발이 또한 이채로운 야경과 어울려 눈부시게 안겨온다.

기복이 심한 장자강기슭의 지형조건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진 장자강인민유원지에 강계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에 넘친 즐거운 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

장자강인민유원지는 당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마련된 대중체육활동기지, 과외교양기지인 동시에 즐거운 문화휴식터이다.

지난해 6월 강계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자강기슭에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즐겨찾는 물놀이장, 수영장, 문화휴식터들을 많이 꾸려주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계시를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는데 필요한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의 은정깊은 사랑을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선 도급기관의 일군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 강계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문지구의 드넓은 부지를 정리하고 새 품종의 잔디를 심었으며 체육공원과 놀이공원, 유람풍치구역, 휴식터와 봉사건물을 비롯한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체육, 놀이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 이름까지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우리 장군님의 정든 고장인 자강도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이채롭게 변모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있다.

특파기자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락랑구역 락랑3동 24인민반 최정숙녀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년로보장으로 일손을 놓게 된 최정숙녀성의 생각은 깊었다. 이날따라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한 삶을 누려온 자신의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어머니를 잃은 자기를 따뜻이 품에 안아내세워준것은 어머니당이였다. 당의 고마운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지난 수십년간 누가 보건말건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과 원군사업에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거듭 받아안았으며 조선로동당 제2차 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었다.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그의 세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아들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날로 커가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생각할수록 그는 보답의 마음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몹시 안타까왔다.

그러던 어느날 최정숙녀성은 어느 한 체육단에서 력기감독으로 일하고있는 둘째아들이 력기선수들의 기술발전과 후방사업을 두고 몹시 마음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체육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그는 생각이 많았다.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는 체육선수들이 아닌가. 그들을 위한 일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리라.)

그는 깊은 밤에도 력기와 관련한 도서들을 학습하고 둘째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초기술들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품들여 마련한 력기훈련기재들을 청소년체육학교들에 보내주었으며 친어머니심정으로 선수후비들을 위해 갖가지 영양식품들과 보약들도 성의껏 만들어주군 하였다.

사람들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다 바치는 최정숙녀성을 두고 《력기어머니》라고 정답아 불렀다.

그는 녀자력기선수들의 생활도 따뜻이 돌봐주었다.

몇해전 어느날 국제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다그치던 오정애선수는 최정숙녀성이 보내여온 보약들과 함께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이제 진행하게 될 국제경기에서도 공화국기를 높이 날려 당의 크나큰 은정에 꼭 보답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부탁이 씌여져있는 편지를 읽으면서 오정애선수는 지난 기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정을 기울여온 최정숙녀성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후 오정애선수가 여러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련속 우승을 쟁취하자 최정숙녀성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를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오늘도 오정애동무를 비롯한 녀자력기선수들은 자기들을 위해 바친 최정숙녀성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잊지 못하고있다.

두해전 11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최정숙녀성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최정숙녀성은 오늘도 이런 불같은 일념을 안고 생의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은을 낸다

함경북도 온성군제1인민병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북단에 자리잡고있는 함경북도 온성군제1인민병원에서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마련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리용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원장 리일남, 기술부원장 박상길, 외과과장 정광혁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함경북도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있다.

임의의 시간에 상급병원의 유능한 의사들과 긴급의사협의회를 신속정확히 진행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있으며 중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때에도 그들의 풍부한 림상경험을 받아들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하고있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강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리용하여 최근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추세도 알고 그에 맞게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리용하여 병원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상급병원으로의 환자파송률이 훨씬 줄어들었다.

지난 시기에는 군인민병원자체의 힘으로 하기 어려웠던 구급뇌수술을 비롯한 어려운 수술들까지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환자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머나먼 조국땅 한끝에서도 수도와 도소재지의 상급병원들과 련계하여 진단과 협의, 상담과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수술을 제때에 원만히 할수 있게 된 놀라운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곳 의료일군들은 올해에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서 더 큰 혁신을 이룩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근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대고조에서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일군은 제대군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대군인들의 기수적인 역할에 의하여 새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정수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제도를 좀먹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는것은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다른 나라들을 지배, 략탈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인민들의 힘이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인민은 강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굴복시킬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사상문화적침투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를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고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제관계와 세계정세발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평화와 완화, 발전이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적대관계, 대립관계에 있던 나라와 세력들이 화해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고있다.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있다.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제국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활발해지는 세계적인 사회경제관계발전의 흐름을 타고 《협력》과 《교류》 등 각종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보다 적극적이며 공개된 방법으로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류포시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거세하는데는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제격이라고 보고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좀먹고 해치는 무서운 독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서 기본은 다른 나라들에 부르죠아사상과 자본주의생활양식을 전파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며 다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사람들을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바로 여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위험성이 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악랄한 반동공세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은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기둥이다. 머리에 자본주의의 쉬가 쓸게 되면 신념을 버리게 되고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당하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사상문화전파에 힘을 넣고있는것은 그것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과 방송망체계는 물론 래왕, 상품수출, 경제교류 등 모든 공간을 부르죠아사상문화전파의 통로로 리용하고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의 주요수단은 라지오와 텔레비죤방송, 이색적인 도서 등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을 내부로부터 부패변질시켜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려는 야망밑에 부르죠아사상과 생활양식을 이 나라들에 침투시키기 위한 공세를 끈질기게 벌렸다. 그들은 방송과 출판물, 각종 록화테프, 관광과 교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그러나 해당 나라들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반사회주의분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사회주의는 하루아침에 붕괴되고말았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각성있게 대하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력사적교훈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의 내부에 반동적부르죠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책동하면 할수록 그것을 철저히 막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의와 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들은 그 어떤 부르죠아사상문화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필연적으로 반혁명세력들의 대두를 가져온다. 사상문화전선에서의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이 투쟁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

제국주의사상문화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혁명하는 인민들은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외전략3대기둥중의 하나는 사상문화적침투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심리전을 들이대여 상대를 손쉽게 거꾸러뜨린 미국은 이를 세계제패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삼고있다.

폭로된 자료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매우 무서운 독소를 가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저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황당무계한 선전은 부르죠아사상의 반동성을 가리우고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을 말살하기 위한 허황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상과 부르죠아사상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사회주의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사상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사상이다.

부르죠아사상은 착취계급을 위한 사상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그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이다. 부르죠아사상이 인민대중의 반대와 배격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패한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자기것을 사랑하고 자기것이 제일이라는 정신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그들속에서 조국애, 민족애가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그것을 좀먹고 해치는 현상과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특히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 민족의 우수성을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민족성원으로 태여난것을 더없는 긍지로, 행복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예술은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뿐아니라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막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상성이 높고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생활감정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우수한 민족문화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여 보급되면 될수록 인민들은 그만큼 사상적으로 각성되게 되며 민족적자존심도 높아진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날라리바람에 물젖어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죠아자유화바람에 쉽게 말려들수 있으며 결국 사회의 우환거리로 될수 있다. 미국은 《색갈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청년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미국이 이전 쏘련지역 나라들에서의 《색갈혁명》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반정부시위방법을 전습시키고 그들을 정부전복에로 내몬것은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그것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려면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특집

영생하시는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짐바브웨신문 《헤랄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2013년 12월 17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이 되는 날이다.

사회주의조선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로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인민은 대국상을 당하였지만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일 확고한 신념과 도덕의리심을 안고 한결같이 일떠섰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희세의 사상리론가, 선군령장이시다.

우간다신문 《싼 라이즈》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만민을 포근하게 안아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 등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으며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온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칭송하였다.

벌가리아신문 《노보 라보 므니체스꼬 델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였다.

선군정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압살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어째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을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씨야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과 산하 씨비리 및 원동뷰로 인터네트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를 올해 조선의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헌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적극 소개선전할것이다.

발전도상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

발전도상나라 대통령들이 새해 2014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또고대통령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는 새해에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사회적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과 안전분야에 특별한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경제장성속도를 높일수 있도록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들이 각성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꼬뜨디봐르대통령 알라싼 우아따라는 올해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평화와 안전, 민족적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니제르대통령 마하마두 이쑤푸는 관개공사, 알곡생산 및 축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가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며 학교건설과 교원양성사업에 힘을 넣을것을 정부의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메히꼬대통령 엔리께 뻬냐 니에또는 지난해 에네르기, 통신, 교육부문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사회경제적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정부가 새해에도 그 성과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행

백년숙적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129년전인 1885년 1월 9일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꾸며낸 《한성조약》은 일제침략자들의 흉악한 정체와 범죄적죄행을 낱낱이 까밝혀주고있다.

《한성조약》은 1882년의 《제물포조약》에 뒤이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제가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약》에서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 이소바야시대위를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을 규정함으로써 1884년의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이와 함께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구실밑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강도적인 조문을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강화도조약》조작후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오던 일제는 조선침략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며 조선의 근대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884년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갑신정변을 악랄한 모략과 갖은 교활한 책동으로 파탄시켰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한 후 일제침략자들은 정변시에 저지른 죄행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고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들의 공사관을 스스로 불살라버렸으며 인천으로 도주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도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 〈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었다. 그후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한편 침략자들은 1882년의 군인폭동때보다 《피해》는 크게 받았지만 조선과의 《친목》을 두터이 하는 의미에서 보상은 적게 받겠다는 등의 교활한 회유술책을 썼다.

일제침략자들은 바로 이렇게 군사적위협과 등치고 간빼먹는식의 간악한 술책을 배합하여 침략적인 《한성조약》을 조작하였다.

《한성조약》의 날조는 포악하고 흉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악랄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제가 《한성조약》을 비법적으로 날조한 때로부터 129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의 불법무도한 죄악을 생생히 새겨두고있다.

력사는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사죄와 배상을 할대신 도리여 식민지력사를 미화하고 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피비린 조선침략죄행을 집요하게 외곡, 부정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서 일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하고 천백배의 피의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반드시 총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김 수 진

침략력사를 반성할것을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 홍뢰가 얼마전 일본침략군이 남경대학살을 감행한 76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침략력사를 심각히 반성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남경대학살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중국침략전쟁에서 범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행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력사를 바로 보고 심각히 반성하며 력사를 거울로 삼아 중국 등 아시아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앞에서는 군사대국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앉아서는 침략력사를 끈질기게 부정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의 군사안전정책방향은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력사를 바로 볼수 없는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해 론할 자격이 있는가, 또 어떻게 세계평화에 공헌할수 있다는것인가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랭전식사고방식을 고수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을 끌어당겨 지역대결을 조성하고 정세를 혼란시키려 하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에 대응할것이 있다고 언명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가 얼마전 모스크바항공기술대학 학생들과의 상봉석상에서 자기 나라는 미국미싸일방위체계의 유럽전개에 대응할것이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와 관련하여 로씨야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 않는다, 나라의 과학자, 설계가들은 효과적으로 일하고있으며 군대가 보유하고있는 무기는 위력하고 기동적이며 효과적이다, 우리에게는 대응할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가 취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것은 허위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구온난화피해

꾸바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바다수위가 높아지면서 주요휴양지의 하나인 바라데로해안에서 년간 4만~5만㎥의 모래가 류실되고있다.

2012년에는 이러한 침식현상으로 전국의 해안가들중 거의 84%에 달하는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농촌지역 빈곤구제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지역의 빈곤자수가 6 700만명 줄어들었다. 중국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이 지난해 12월 25일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에서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자치구에서는 지난해에 12만 7 500세대에 달하는 농촌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의 광동성에서 4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여 지난해 12월 28일에 개통하였다. 이로써 성의 고속도로 총연장길이는 5 705㎞에 달하게 되였다. 새 고속도로들이 개통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중국 무한시의 대형공중타원체 건물련결구조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에서 첫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꼬챠밤바에 건설된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3 000kW에 달한다. 2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발전소조업식이 진행되였다. 조업식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정부가 전국각지에 풍력발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깨끗한 에네르기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볼리비아의 꼬챠밤바에 첫 종이공장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3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조업식이 진행되였다.

공장은 올해 상반년에 시험생산을 거친 후 8 400t의 종이를 생산하게 된다. 2015년에 가서 공장의 생산능력은 1만 5 200t으로 확대될것이라고 한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2030년까지 11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그중 4개는 발전능력이 각각 32만 5 000~34만kW이며 7개는 각기 110만kW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 원자력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서 올해 나라의 경제를 7.2%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관광, 수출 등 부문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한다. 2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정부가 2일 어린이보육쎈터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올해에 45개의 보육쎈터가 건설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2만개의 어린이보육쎈터를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도미니까에서

도미니까에서 지난해 52차례에 걸쳐 총 11.2t이상의 마약을 불태워버렸다.

이 마약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밀수되던중 적발압수된것들이라고 한다.

더욱 로골화되는 미군의 강점기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구강점을 기어이 성사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얼마전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서서 아프가니스탄이 저들과의 안보협정에 속히 서명해야 한다고 강짜를 부리며 횡설수설하였다.

이자는 아프가니스탄이 될수록 빨리 미국과의 안보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느니, 쌍무안보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은 하는수없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나 나토군이 없는 2014년이후의 미래계획작성에 달라붙어야 할것이라느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며 아프가니스탄의 리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로골적으로 위협하였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이 나라에 가져다준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쓸개빠진 《리익》타령인가.

군사적침략으로 주권국가를 덮치고 한 나라를 테로와 보복, 살륙과 파괴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버린것이 미국이 운운하는 《리익》인가.

강도에게 그 무슨 구실이 있고 론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뿐일것이다.

미군의 강점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막대한 피해만 주지 리익은 한푼어치도 있을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는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사이의 안보협정문제는 미군이 《공약》한 철수날자가 박두해오면서 표면화되였다.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듯이 연극을 놀던 미국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 저들에게 미군을 그대로 남겨두어달라고 요구할것이라고 타산했다.

영구강점의 명분을 얻어 세계여론과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채우자는 속심밑에 꺼내든것이 안보협정체결이였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요구에 의해 하는수없이 미군주둔을 연기하는것처럼 냄새를 피울수 있고 이 나라에서 미군이 치외법권도 당당하게 누리게 되는것이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가소로운 계책이였다.

미국이 헐하게 성사되리라고 생각했던 안보협정체결문제는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골치거리로 되게 되였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이 올해말까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될수 있다.

바빠맞은 미국이 조급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어중이떠중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아프가니스탄을 핍박하였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쉽게 굽어들지 않고있다.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안보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립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민가들에 대한 공습을 즉시 중단하고 아프가니스탄정부와 탈리반사이의 평화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인디아를 방문하면서 그는 협정에 절대로 서명할수 없다는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회유와 기만으로는 안보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구강점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절감한 미국은 위협공갈로써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고있다.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서서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대고 안보협정에 빨리 서명하라고 강박한것은 강권으로라도 저들의 강점기도를 기어이 성사시켜보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구실이 부족할 때에는 힘의 정책과 우격다짐으로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는것은 미국의 습성이다.

오만과 독단, 강권과 전횡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과의 안보협정체결문제를 놓고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것은 뻔하다.

변한적도 없고 변할수도 없는 승냥이의 본성을 체질화한 미국은 그 어떤 무모한짓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것이다.

미국의 영구강점기도에 백방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화만 더욱 커지게 된다.

이미 력사는 이 진리를 인류에게 뼈저리게 새겨주었으며 머지않은 앞날이 또한 명백히 실증해줄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사고

— 인디아의 안드라 쁘라데쉬주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달리던 렬차에서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타이의 페차분주에서 뻐스가 다리밑으로 굴러떨어져 3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 인도네시아의 남부쑤마뜨라주에 있는 한 강에서 3일 배침몰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2일 인디아의 서부지역에서 달리던 뻐스가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3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연피해

— 인도네시아의 중부쟈바주에서 얼마전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났다.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 미국과 카나다에서 폭풍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지난해 12월 24일현재 미국의 동북부와 중부지역에서는 사망자수가 17명으로 늘어나고 50만세대이상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카나다에서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16만명이 전기불을 보지 못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004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